

천태 『육묘법문』과 청화 염불선의 연계점

최동순*

• 목 차 •

- I. 머리말
- II. 관상염불에 따른 호흡 중시와 『육묘법문』
 - 1. 염불선의 호흡과 그 중요성
 - 2. 육묘호흡에 대한 십문분석과 염불선 적용
- III. 실상염불선의 성립과정과 『육묘법문』의 호흡방편 채택
 - 1) 관이염지 및 통관상념의 성립
 - 2) 총관실상의 호흡과 실상염불선
- IV. 맺음말

*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연구원.

© 『大覺思想』 제29집 (2018년 6월), pp.77-101.

한글요약

본 연구는 천태대사 지의(538~597)의 가르침인 『육묘법문』에 소개된 호흡 방식과 청화 스님의 가르침인 염불선법에 나타난 지식(止息)의 연계점을 밝히고자 한다. 『육묘법문』은 안세고가 번역한 『안반수의경』을 중심으로 재구성한 책이다. 지의는 호흡을 여섯 가지로 분석하여 육묘라고 하였으며, 그 ‘묘(妙)’는 열반으로 나아가는 바라밀임을 강조하였다.

현대의 염불선은 청화(1924~2003) 스님이 소개하였다. 여기서 염불선은 ‘실상염불선(實相念佛禪)’의 약칭이다. 이 행법은 관상(觀相)을 중시하며 지식(止息)을 위한 염불법 수용이 필요하며 동시에 지혜의 계발을 목표로 한다. 그 과정에서 수행자는 자신에게 적합한 염불선의 위치와 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

육묘문의 가르침은 수행자의 필수인 호흡조절과 이에 대한 다양한 분석들을 신고 있다. 이에 청화스님의 염불선은 관경(觀境)이 기반이므로 호흡 방법을 통한 지식(止息) 과정이 필수이다. 따라서 지식 상태에서 정(定)이 구비될 때 관(觀)이 이루어지며 비로소 혜(慧)를 밝힐 수 있다고 하였다. 청화스님은 이에 대해 관이염지·통관상념으로 규정하고 그 상세한 방법들을 소개하였다.

천태대사 지의의 『육묘법문』의 수행법 분류는 부정(不定)의 입장에서 설명하였다. 여기서 상생(相生)·상섭(相攝)·편의(便宜)의 차례와 이를 전환하여 불란(不亂)에 들어가는 방법들을 제시하였다. 이에 청화스님은 총관실상으로 서 실상염불의 선법을 제시하였다. 천태대사의 설명과 청화스님의 가르침은 이승(二乘)의 법문에 그치지 않고 대승보살의 수행법으로 승화시킨 점이 특징이다. 천태학에 구비된 정밀하고 다양한 교상(내용)과 행법(실천) 체계는 청화스님이 추구한 지귀(旨歸)로서 일치한다.

주제어

천태대사 육묘법문, 부정지관, 청화선사, 실상염불선, 보리방편문, 금강심론, 호흡, 관이염지, 총관실상

I. 머리말

석존의 대각은 선정에 의해 이루어졌지만 이 때 수반된 호흡에 대한 표현은 많지 않다. 그러나 선정이나 염불의 방법에서 호흡을 상세히 표현하지 않았을 뿐, 그 중요성은 강조된다. 중국불교 초기 『안반수의경』 소개는 호흡의 중요성 때문이었고, 천태지의(538~597)는 이를 『육묘법문』으로 재구성하였다. 여기서 호흡을 여섯 가지로 분석한 것이 육묘이며, 이 ‘묘(妙)’는 열반으로 나아가는 길임을 강조하였다. 그 육묘에 대해 천태대사는 열 가지로 분석하였고 이는 다면적·중층적 구조를 갖게 되므로 부정(不定)지관으로 분류한다. 천태대사의 이 가르침은 염불과 선에서 간과할 수 있는 호흡을 중심 주제로 선택했다는 점에서 그 활용도는 현대에도 매우 크다.

천태학은 순선(純禪)시대에 성립되었고 다양한 교리와 행법에 대한 원용적 입장이다. 청화스님 역시 달마-혜능 시대에 발전했던 순선을 정통으로 삼고 이를 원통불교로 교판하였다. 이 교판은 교판일치를 통한 위차 수용과 상섭(相攝)의 중시는 물론 실상구현을 위한 원돈의 추구로서 천태학과 연계된다. 따라서 염불선의 입장에서 『육묘법문』의 방법들을 수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 청화스님 법문에 다수 산재한다.

현대의 염불선은 청화스님이 소개하였으며 실상염불선이라고도 한다. 그 행법은 관상(觀相)을 중시하며, 지식(止息)을 위한 방편 수용이 필요하며, 동시에 지혜의 계발을 추구한다. 이 과정에서 염불선 수행을 위해 행자는 자신에게 적합한 위차(位次)를 채택할 수 있다. 이에 금타스님이 제시한 『보리방편문』의 관법은 누구나 동참 가능한 염불선이다. 관이염지(觀而念之)와 통관실상(通觀實相)으로 이어지는 삼신일불(三身一佛)의 사유법에 따른 호흡의 중시는 특히 강조된다. 따라서 『육묘법문』의 호흡 방편에 대한 연구는 염불선 확산에 매우 유의한 자료이다. 본 연구는 『육묘법문』에 나타난 호흡 분석을 통해 염불선의 위치를 가늠하며 또한 그

위상 제고를 위해 논지를 전개한다.

II. 관상염불에 따른 호흡 중시와 『육묘법문』

청화스님의 염불선은 세속의 대중과 출가 수행인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행법이다. 본란에서는 『육묘법문』에 내재된 호흡방편들을 살펴보며 지식(止息)을 통한 일심불란과 정혜 구족이 염불선과 직결된다는 점을 확인한다.

1. 염불선의 호흡과 그 중요성

『육묘법문』의 서문에는 부다가야에서 석존이 대각을 성취할 때 호흡(呼吸)의 방편이 있었음을 설하고 있다.¹⁾ 그렇다면 불교의 태동부터 호흡²⁾의 중요성이 시작된 것이다. 따라서 역대 선사들은 물론 중국의 천태대사(538~597)나 대한민국의 청화 선사(1924~2003) 역시 수행 중의 호흡을 중시했음은 자명한 일이다. 순선시대에 강설된 천태대사의 『육묘법문』은 좌선과 염불에 미치는 호흡의 중요성을 일깨워 준다. 천태대사는 이를 대승의 주요 방편으로 활용하였다. 『육묘법문』 강설은 그가 금릉(현 남경)의 와관사(瓦官寺)에 주석할 당시 『차제선문』을 설한 후 당시 진(陳)의 상서령인 모희(毛喜)의 요청으로 이루어졌다.³⁾ 그가 강설한 법문 형식에는 삼종지관이 있으며 『육묘법문』은 부정지관(不定止觀)으로 분류

1) 지의, 『육묘법문』(大正藏46, p.549상), “釋迦初詣道樹。跏趺坐草。內思安般。一數。二隨。三止。四觀五還。六淨。因此萬行開發。降魔成道。”

2) 呼는 breathe out은 날숨이며 吸은 to suck up, inhale로서 들숨이다. ānāpāna 아나파나(阿那波那)·아나반나(阿那般那)·안나반나(安那般那)로 음역하며, 줄여서 안반(安般)이다. ‘아나’는 들숨이며 지래(持來) 또는 견래(遣來)로 번역하며, ‘아파나’는 날숨으로 견거(遣去)로 번역한다.

3) 佐藤哲英, 『天台大師研究』, p.153.

된다.4) 점차지관은 『차제선문』이며 원돈지관은 『마하지관』이다.

『수습지관좌선법요』에서는 좌선을 위한 준비로서 조식법(調息法)을 세우고 이를 풍(風)·천(喘)·기(氣)·식(息)의 4단계 호흡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 4단계는 선정을 위한 준비로서 공기가 흡입되어 코와 목구멍, 혀, 그리고 몸 전체로 이어질 때, 이를 고르게 조절하는 방법이다.5) 그리고 『육묘법문』의 육묘는 이전의 6사(六事)를 대승의 입장에서 분석한 것이다. 이 6사는 『안반수의경』 등에 활용되었는데6) 숨을 헤아리고[數息], 따르고[相隨], 멈추고[止], 관하고[觀], 돌려서[還] 청정하게[淨] 하는 것이다.7) 이에 천태대사가 6사 각각에 묘(妙)를 적용한 것이 『육묘법문』이다.

육묘는 호흡을 통해 산란심을 제거하고, 불란(不亂)의 상태를 견지하여 관조가 이루어져 청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편이다. 여기서 정(定)과 혜(慧)로 구분할 때, ①수(數)·②수(隨)·③지(止)의 세 가지는 정(定)에 해당하며, ④관(觀)·⑤환(還)·⑥정(淨)의 세 가지는 혜(慧)로 구분된다.8) 청화스님의 육묘 해설9)에 따라 도식하면 다음과 같다.

-
- 4) 不定이란 불설에 대한 삼승의 이해도 차이이다. 이를 둘로 나누어 보면, 첫째는 이승과 보살의 이해도의 차이이며, 둘째는 불설을 듣는 대중들이 비록 동일 장소에 있더라도 서로가 타인의 이해도를 알 수 없다는 점이다.
- 5) 지의, 『수습지관좌선법요』(大正藏46, p.466상), “初入禪調息法者。息有四種相。一風二喘三氣四息。”
- 6) 六事の 개념은 『안반수의경』은 물론 『대비바사론』, 『구사론』 등에 편재해 있다(홍홍영, 「천태지의의 안나반나」, 『한국불교학』 제28집, 2001, p.199).
- 7) 안세고 번역 『안반수의경』에서 ‘安般’이란 범어 ‘아나파나사티(Anapanasati)’이다. 들숨을 뜻하는 아나(āna)와 날숨을 뜻하는 아파나(apāna)를 음역한 것이다. sati란 ‘의식을 집중한다’는 뜻으로 수의(守意)라고 번역되었다. 호흡에 의식을 집중하고 마음을 제어하여 깨달음에 이르는 수행의 방법이다.
- 8) 지의, 『차제선문』(大正藏46, p.524중), “此六妙門。三是定法。三是慧法。”
- 9) 『정통선의 향훈』, 광륜출판사, 2008, p.218.

정	①수(數)	수를 헤아려서 마음을 안정
	②수(隨)	숨 쉬는대로 생각
	③지(止)	의식하지 않을 정도
혜	④관(觀)	관법으로 집착 제거
	⑤환(還)	돌이켜 자기 관찰
	⑥정(淨)	분별시비 없는 일미평등 자리

이 때 수·수·지는 마음을 고요히 하여 번뇌를 그치게 하며, 관·환·정은 밝게 비추어보아 지혜를 계발한다. 천태대사는 이 6사를 육묘로 정립하였다. 수묘(數妙)·수묘(隨妙)·지묘(止妙)·관묘(觀妙)·환묘(還妙)·정묘(淨妙)로 표현되며 ‘묘’는 멸제로서 삼독을 벗어나 열반으로 나아가기 때문이라 하였다¹⁰⁾

청화스님도 법문에서 호흡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심(深)·장(長)·세(細)·균(均)케 하여 호흡을 깊게 하고, 짧지 않고 길게, 거칠지 않고 세밀하게 그리고 고르게 하여서 지식(止息)에 도인(導引)하여 이끌고 번뇌를 멸진(滅盡)하는데 호흡법이 필요한 것이요, 다만 우리가 항상 할 것은 무엇인고 하면, ‘내자성(自性)이 원래 부처요, 천지우주가 이대로 일체 공덕을 다 갖춘 부처뿐이구나!’ 이렇게 느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화두나 염불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¹¹⁾라고 하였다.

염불선은 불란(不亂)의 상태를 견지하기 위한 호흡 조절의 방법들을 수용한다. 청화스님의 가르침에서 비록 호흡에 대한 언급이 없더라도 그 중요성을 굳이 설하지 않았을 뿐이다. 전문수행자라면 별도의 한거정처(閑居靜處)에서 좌선이나 관상이 가능하겠지만, 연무(緣務)의 대중들은 산란심을 극복하기가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채택하기 쉬운 호흡방편과

10) 지의, 『육묘법문』(大正藏46, p.549상).

11) 『정통선의 향훈』 광륜출판사, 2008, p.224.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그의 법문과 저술 등에서 제시하고 있다. 그 가운데 『원통불법의 요체』를 중심으로 호흡과 지식(止息)의 관계를 살펴본다. 스님은 염불수행이나 진언수행 등 모두가 행자의 마음을 한 경계에 머물게 하는 공부를 해야 분별하고 망상하는 산심(散心)을 잠재우는 것이라 하였다. “선정에서 초선정, 2선정, 3선정까지 가더라도 역시 산란심은 온전히 못 끊어집니다. 산란심이 끊어지지 않으면 호흡도 거기에 따릅니다. 우리 생명이 신비로운 것이 망상 분별하는 마음과 호흡과는 정비례합니다. 마음이 거칠면 호흡도 거칠고 호흡이 고요하면 마음도 고요해집니다.”¹²⁾라고 하여 망심이 줄어들면 자동적으로 지식(止息)이 된다고 하였다. 여기서 육묘호흡을 소개하고¹³⁾ 있으며 그것을 아함경의 4선정과 견주어 밝히고 있다. 지식(止息)이란 번뇌 망상하는 마음을 그치도록하며 호흡을 오랫동안 머물게 하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특히 청화스님의 가르침은 호흡과 산란심이 비례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어 근기와 방식에 따라서 그 결과도 달라 질 수 있음을 알리고 있다. “우리 마음도 어느 문체에다가 의심을 골똥히 품게 되면 우리 마음이 모아지고 정화(淨化)가 되겠지요. 그러나 수승한 근기가 된 사람들은 빨리 모아지는데, 보통 근기는 그 의심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지는 것입니다.”¹⁴⁾라고 하여 호흡 조절에 의해 지(止)의 상태로 전환할 수 있음을 알리고 있다.

『육묘법문』의 가르침은 호흡이 중요하다는 점을 넘어 교상(敎相)·행상(行相)은 물론 증상(證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관점으로 청화스님은 설명하고 있다. 염불선 역시 관상(觀相)을 기저로 형성된 선법이므로 청화스님은 칭명(稱名)·관상(觀像)·관상(觀想)·실상(實相)의 4종염불을 설했는데 여기서 스님은 관찰과 관조를 강조하였다.¹⁵⁾ 따라서 관(觀)이란 호흡을 통한 지식(止息)의 기반이 필요하다. 안세고의 『안반수의경』이 선

12) 『원통불법의 요체』 광륜출판사, 2008, p.139.

13) 『원통불법의 요체』(광륜출판사, 2008) p.52의 호흡집중 내용에 대한 내용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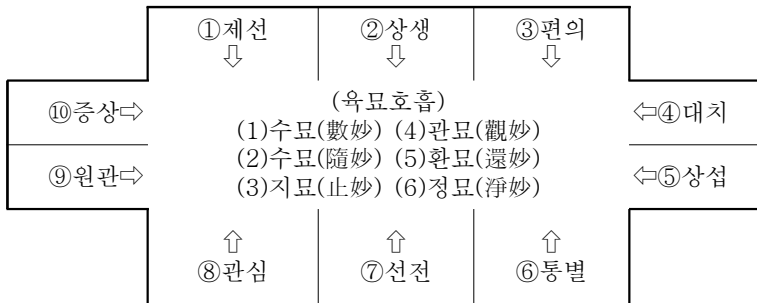
14) 『원통불법의 요체』 광륜출판사, 2008, p.236.

15) 『실상염불선』, 광륜출판사, 2013, p.166.

경(禪經)으로서 일찍이 번역된 것도 호흡에 대한 중시 때문인 것이다. 이에 『육묘법문』은 대승의 뜻을 알리고 또한 천태학적 분석과 행법에 적용하고 있다. 청화스님 역시 호흡방편을 중시하였고 일심불란 상태의 지속을 강조하였다. 올바른 지식(止息)과 관상을 위해 육묘호흡의 방식을 수용하게 된 배경이다.

2. 육묘호흡에 대한 심문분석과 염불선 적용

『육묘법문』의 심문은 호흡에 대한 중층적 분석이다. 이는 천태대사가 설한 『사념처』의 형식을 넘어 호흡의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¹⁶⁾ 육묘에 대한 분석에 따라 열 가지의 다양한 시각을 제시하는데 제선정, 차제상생, 수편의, 수대치, 상섭, 통별, 선전, 관심, 원관, 증상이다. 이 10가지는 호흡을 통해 정(定)을 심화시키고 혜(慧)를 계발 과정을 다시 여러 가지의 각도로 분석한 것이다. 그것은 호흡에 대한 통합적 분석이며, 이에 따라 수행자는 염불이나 관경(觀境) 및 좌선에 있어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를 토대로 자신에 맞는 수행법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부정지관(不定止觀)이다. 육묘호흡에 대한 심문분석을 도시하면 다음과 같다.



< 육묘에 대한 심문분석 >

16) 사념처인 身念·受念·心念·法念을 장교·통교·별교·원교의 4가지의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위의 도식을 본다면 호흡에 대한 관점이 다양함에 따라 행상 역시 여러 가지로 펼쳐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다면적 분석 방식은 『법화경』 「방편품」에 설치된 법의 속성인 ‘십여시(十如是)’의 실상(實相)과 견줄 수 있다. 『육묘법문』의 십문분석 역시 ‘실상관’과도 상통한다. 이는 청화스님의 실상염불선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이해하게 된다. 이에 십문 분석의 방식을 청화스님 제 법문 중에서 추출하고자 한다. 제1의 제선과 제10의 증상을 제외한 8개 분과에 대해 아래와 같이 간략히 설한다.

제②의 「상생(相生)육묘」의 호흡법은 청화스님의 가르침과 관계된다. 이를 살펴보면 “호흡과 우리 마음과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망심이 줄어들면 그에 비례해서 호흡도 가지런해집니다. 반대로 호흡이 고요해지면 우리 망심도 줄어집니다.”¹⁷⁾라고 하여 상생관계를 언급하였다. 또한 “산란스러운 마음을 도저히 어떻게 잠재울 수가 없는 사람들은 호흡을 헤아리는 수식관(數息觀)으로 마음을 다스리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수를 헤아리다가 조금 나아지면, 어느 정도 망상이 줄어들면, 그때는 호흡을 헤아리기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 뒤에는 수식(隨息)입니다.”¹⁸⁾라고 하여 지식(止息)으로 이어지는 차례를 설하고 있다.

제③의 「수편의(隨便宜)육묘」를 염불선에 적용이 가능하다. 수행자는 자신의 성향을 파악하여 특정한 수행법을 선택할 수 있다. 스님은 “일반 분들은 가만히 아무말도 않고 잠자코 명상하기가 쉽지가 않겠지요. 따라서 염불삼매라, 부처님 이름을 자꾸만 외우다보면 그 때는 망상이 줄어들고”¹⁹⁾라고 하여 수행상 편의에 따라 칭명염불 혹은 관상염불, 실상염불 등 자신에게 적합한 선택을 권하고 있다.

제④의 「대치(對治)육묘」으로서 청화스님은 오정심관을 예로 들고 있다. “자기 몸뚱이나 다른 대상에 대하여 탐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부정관을 하는 것이고, 인정이 부족하고 이기심이 많은 사람들은 자비관을, 또

17) 『원통불법의 요체』, 광륜출판사, 2008, p.140.

18) 『원통불법의 요체』, 광륜출판사, 2008, p.138.

19) 『안거법어』, 광륜출판사, 2009, p.59.

는 어리석은 마음이 많아서 시비 분별을 못가리는 사람들은 인연관을, 산란스러운 마음을 도저히 어떻게 잠재울 수가 없는 사람들은 호흡을 헤아리는 수식관을 관불관(觀佛觀)은 부처를 관조하는 법입니다.”²⁰⁾라고 하여 산란심이 많을 때는 대치할 수 있는 관법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점을 알리고 있다.

제⑤의 「상섭(相攝)육묘」로서 청화스님은 호흡과 마음의 상관관계를 언급하였다. “우리 마음과 호흡은 항상 상관(相關)이 있습니다. 호흡이 정화(淨化)되면 마음이 정화되고 마음이 정화되면 호흡도 역시 정화됩니다. 따라서 마음을 정화시켜서 호흡을 정화시키는 방법 또는 반대로 호흡을 정화해서 마음 정화시키는 방법으로 할 수가 있지요.”²¹⁾라고 하여 상섭육묘의 교차와 형식이 같음을 알 수 있다.

제⑥의 「통별(通別)육묘」로서 저열의 이승이 관찰하는 호흡법과 수승의 보살의 호흡법이 다르다는 점을 스님은 알리고 있다. 범부선과 소승선 그리고 대승선과 최상승선으로 구분하는 것으로서 차원이 다름을 가리킨다. “범부나 외도(外道) 또는 이승(二乘)의 보살이 공통적으로 숨소리를 헤아리는 방법을 하나만 보지만 그 알음알이나 지혜가 다르기 때문에, 그들 이 열반을 증득하는 것은 판이하게 다르다.”²²⁾라고 하였다. 여기서 삼승 가운데 성문·연각[通敎]의 호흡과 보살[別敎]의 호흡이 다르다는 점을 알리고 있다. 따라서 보살의 호흡이므로 여기에 묘(妙)를 붙여 수승한 호흡이 성립하는 것이다.

제⑦의 「선전(旋轉)육묘」는 호흡을 자유롭게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청화스님은 “억지로 화두를 하려 하지 말고 억지로 염불도 하려 하지 말고,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호흡만 해도 무방한 것입니다. 호흡을 하다가 너무 꾸벅꾸벅 혼침이 온다면 다시 화두도 챙기고 염불도 하는 것입니다.”²³⁾에서 이를 편의나 대치의 입장으로 볼 수 있지만 스스로 전환시킨다

20) 『원통불법의 요체』, 광륜출판사, 2008, p.136.

21) 『정통선의 향훈』, 광륜출판사, 2012, p.168.

22) 『실상염불선』, 광륜출판사, 2013, p.147.

는 점에서 선전으로 볼 수 있다.

제⑧의 「관심(觀心)육묘」는 즉심[관심]염불로 연계된다. 이에 청화스님은 『관무량수경』 「상관」의 ‘시심작불(是心作佛)과 시심시불(是心是佛)’에 대한 해설에서, 심외(心外)에 부처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곧 심즉시불임을 제시하였다. “『관경』의 관불은 약심관불로서 즉본구의 미타의 의정을 관하여 아 심성에 훈하고 관성하면 즉본구의 진현이라 설한다. 이는 곧 관칭쌍수의 염불이다.”²⁴⁾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육묘의 관심 방식과 직결된다.

제⑨의 「원관(圓觀)육묘」로서 염불선의 실상관(實相觀)으로 연계된다. “일체만유는 생멸변화하는 것이나 실로는 불생불멸하는 무시무종의 존재로서 영원히 상주하는 것임을 체달하는 관법”²⁵⁾이라 하여 생사즉열반(生死即涅槃)임을 체득하는 것임을 말하고 있다.

이로써 일심불란을 위한 염불선의 과정으로서 『육묘법문』의 십문분석을 살펴보았다. 『육묘법문』의 가르침을 염불선의 수행으로 수용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위의 가르침은 『정통선의 향훈』, 『마음의 고향』 시리즈 등 스님의 법문 여러 곳에서 드러난 내용들이다. 육묘의 호흡법은 이미 여러 경론에서 중시했던 내용들이며, 천태대사는 그것을 열반으로 나아가는 대승의 방편문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또한 육묘호흡에 대한 십문분석은 청화스님의 가르침에도 이미 드러난 내용들이다. 이를 청화스님의 염불선 행법으로 도식하면 다음과 같다.

23) 『마음의 고향』 2, 「수행자법문」, p.231.

24) 『실상염불선』, 광륜출판사, 2013, p.180. 관경(觀經), 관불(觀佛), 약심관불(約心觀佛), 즉본구(即本具), 의정(依正), 훈(熏), 관성(觀成), 진현(眞顯), 관칭쌍수(觀稱雙修).

25) 『실상염불선』, 광륜출판사, 2013, p.177.

구분	4중염불	「보리방편문」	방법
육묘 호흡 적용	칭명(稱名)	<p style="text-align: center;">菩提方便門</p> <p style="font-size: small;">心은 虛空의 佛身이 究竟眞影이 無念廣大無邊의 虛空의 心界를 觀하여 淨法身인 覺이 究竟那佛을 念하고 此 虛空의 心界이 越日 月의 念色光明을 念無知의 淨水가 充滿한 海의 性海를 觀하여 圓海觀身인 覺이 虛空那佛을 念하고 內念 念念滅의 無色界을 在外 日月로 照望山河大地를 羅馬象의 無情衆生과 人等乃至 蠢動含靈의 有情衆生과 一切衆生을 性海無念流自滿인 海中 深至 觀하여 淨千 百德化身인 覺이 釋迦牟尼佛을 念하고 三時 被無量無邊의 清空心界와 淨滿性海를 深觀하고 空性相一如의 一合相으로 道觀하여 淨身一佛인 覺이 阿彌陀佛(彌陀佛)을 念하고 淨妙妙無觀衆의 無常行을 心隨萬境轉인 覺이 阿彌陀佛의 一行相으로 應觀觀察하여 淨身.</p>	읽기
	관상(觀像)		외우기
	관상(觀想)		내용 관찰하기
	실상(實相)		실상 체득하기
십문분석 적용			

위의 도식과 같이 「보리방편문」의 봉독(奉讀)과 관상(觀相)을 통해 실상관의 체득이 가능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때 『육묘법문』이 제시하는 육묘호흡과 십문분석의 형식을 적용할 수 있다. 「보리방편문」 응시와 함께 삼신의 역능(役能)을 관하고 불신의 상(像)을 염하는 것이다. 이는 조사선으로서 추상적인 공안참구와는 달리 시각적인 관상의 염불선과 비교가 가능하다. 따라서 「보리방편문」을 통한 염불선 수행은 대중들에게 적합하다는 점을 알리고 있다.

III. 실상염불선의 성립과정과 『육묘법문』의 호흡방편 채택

『육묘법문』과 청화스님의 염불선 교의적 관계를 앞 장에서 살펴보았다. 이로써 관상(觀相)의 수행에 있어 호흡 중시가 염불선에서 표현되지 않았을 뿐이다. 그것은 「보리방편문」을 설한 금타스님이나 염불선을 주창한 청화스님 역시 마찬가지이다. 본 장에서는 「관이염지」와 「통관상념」의 성립 과정에서 호흡과의 관계를 살피고자 한다.

1. 관이염지 및 통관상념의 성립

‘관이염지(觀而念之)’는 금타스님이 『금강심론』 「보리방편문」²⁶⁾에서 제시한 문구이다. 청화스님의 염불선에 대한 교상과 행상은 스승인 금타(1898~1948)스님의 가르침에 연원한다. 그 주요 취지는 그 상근이든 하근이든 견성하고 오도할 수 있다는 확신의 제시이다. 그 보리를 성취하기 위해 관심(觀心)과 염불을 필요로 하며 정혜균지의 상태로 이어져야 함을 설한다. 이에 금타스님은 ‘관(觀)의 일상삼매로 견성하며 염(念)의 일행삼매로 오도한다.’는 원리를 천명하였다. 이는 관(觀)·념(念)을 동시에 일으키는 행법으로서 곧 대승의 묘문(妙門)인 것이다. 이승(二乘)의 행법을 넘어 대승보살의 실천행으로서 지관검수이며, 이를 통해 증과를 얻게 된다는 점을 말하고 있다.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리방편문」에서 발췌한다.

이의菩提란 覺의 義로서 菩提方便門은 見性悟道の 方便이라 定慧均持의 心を 一境에 住하는 妙訣이니 熟讀了義한 후 寂靜에 處하고 第一節만 寫하여 端坐正視의 壁面에 付하여써 觀而 念之하되 觀의 一相三昧로 見性하고 念의 一行三昧로 悟道함.²⁷⁾

여기에서 염불선 수행으로서 관과 염이 나타난다. 「보리방편문」의 핵심 용어로서 관이염지(觀而念之)이다. 「보리방편문」은 보리+방편+문으로서 깨달음으로 나아가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제시될 수 있음을 가리킨다. 그것은 다양한 근기의 중생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며, 또한 여러 가지의 방편들이 필요하다는 점을 일깨운다. 여기서 교문과 행문의 방편들이 결국 관이염지로 회통된다는 점을 가리킨다. 그

26) 『마음의 고향』 5권, p.46. 「보리방편문」은 금타스님이 선정 중에 용수로부터 감응을 받아 전수받은 고도의 수행법이다.

27) 금타설, 『금강심론』, p.58.

방편으로서 청화스님 법문의 근거로서 순선의 염불과 금타설 「보리방편문」으로 모아진다. 이에 『금강심론』에서 제시된 일상·일행의 삼매와 육묘를 배대시켜 본다면 다음과 같은 도식을 얻을 수 있다.

『문수설반야경』 (금타)	증과	『마하지관』 (청화)	『육묘법문』	
일행삼매 (念)	오도	止-定 (여계포란)	수묘 수묘 지묘	외관
일상삼매 (觀)	견성	觀-慧 (여묘포서)	관묘 환묘 정묘	내관

위는 『문수설반야경』의 ‘일행삼매’ 내용²⁸⁾과 『금강심론』의 정혜근지, 『실상염불선』에서 지관을 종합하였다. 그리고 이를 다시 『육묘법문』의 육묘에 배치하였다. 청화스님의 해설에서 일상·일행의 삼매를 여계포란(如鷄抱卵)과 여묘포서(如貓捕鼠)의 비유임을 설명하고 있다.²⁹⁾ 마치 닭이 알을 품듯이 고요하며, 고양이가 쥐를 잡기 위해 응시하듯이 이 둘로써 견성과 오도를 성취할 수 있다고 하였다.

청화스님은 염불선은 일상(一相)[보리방편문]을 관이염지(觀而念之)하는 것이다. 관(觀)은 지혜(慧)이고 념(念)은 정(定)에 해당한다. “觀은 상대적인 관이 아니라 바로 진리를 관조(觀照) 관찰하는 것이니까 바로 정수(正受)³⁰⁾고 정심행처(正心行處)입니다. 진여를 관하는 것이 참다운 관이 됩니다. 따라서 그와 같이 관하니까 바로 지혜가 되지요. 염(念)하는

28) 梁 曼陀羅仙 譯, 『문수설반야경』(大正藏8, p.731상) 내용 참조.
 29) 『실상염불선』(광륜출판사, 2013) p.142의 여묘포서 및 여계포란의 구분 내용 참조.
 30) 범어 samāpatti, samādhi 정수(正受)는 근본등지(根本等至)로서, 삼마발제(三摩鉢提) 혹은 발제(拔提)라고도 음역하며, 등지(等至)·정정(正定)·현전(現前)이라 의역하기도 한다. 정(定)으로써 관상(觀想) 등의 행위가 지속되는 것을 말한다.

것은 간격이 없이 염념 즉 생각 생각에 상속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관이념지(觀而念之)해서 화두나 또는 기타 염불이나 어떤 진리를 지혜와 선정과 쌍수해서 닦아 나간다면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수습안인(修習安忍)인 습인(習忍)이 생기는 것입니다.”³¹⁾라고 하여 관과 염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붙이고 있다.

『금강심론』은 물론 청화스님의 사상 역시 지관론을 중요한 방편으로 설시(設施)하고 있다. 지관론³²⁾은 불교 초기부터 중시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천태학이 성립했으며 또한 종파로 발전하였다. 천태대사가 설한 『마하지관』의 서문에는 ‘지로서 법성의 고요함이며 관으로서 고요히 비춤이다’³³⁾라고 정의하였는 바, 이는 실상론의 입장에서 구성한 천태종의 행상이다.

청화스님은 법문에서 “그치다 뜻의 지(止)는 산란한 마음을 딱 그치게 하여 마음을 고요히 한다는 말입니다. 본다는 뜻의 관(觀)은 우리의 본성을 비추어 본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무명에 가려 바로 보지 못하는 우리의 본성을 부처님 말씀에 따라서 비추어보는 것입니다.”³⁴⁾라고 하였다. 금타스님과 청화스님은 염(念)³⁵⁾→지(止)→정(定)의 순서로 연결하였다. 이는 염으로서 불란, 지로서 고요[息]를 전제함으로써 정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곧 지관점수나 정혜쌍수가 성립되는 방식이며 역시 천태지관과도 일치되는데 이는 조준호의 주장과도 연결된다.³⁶⁾ 따라서 올바른 관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념(念)에 의한 지식(止息)과 정

31) 『원통불법의 요체』, 광륜출판사, 2008, p.322.

32) 觀은 팔리어 vipassanā이다. 진리에 대한 관찰이며 이는 지(止, samatha)의 고요함과 동시에 이루어질 때 지혜가 계발된다.

33) 『마하지관』, 序(大正藏46, p.2상), “法性寂然名止 寂而常照名觀”

34) 『마음의 고향』 5권, 『보리방편문』, 서울: 상상나무, 2008, p47.

35) 念은 팔리어 sati이며 범어 smṛti이며 심소(心所)의 작용이다. 이는 마음으로 객관대상을 기억하여 잊지 않는 정신작용이다.

36) 조준호, 「초기불교에 있어 止·觀의 문제」, 『한국선학』 1호, 2000. ; 「초기불교경전에 나타난 수행에 관한 용어와 개념의 검토 - 지관을 중심으로-」, 『한국선학』 제3호, 2001.

(定)이 이루어져야 혜(慧)를 계발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청화스님에 의하면 육묘의 염으로서 수·수·지가 배치되며 그 다음 관으로서 관·환·정을 놓게 되는데 이것이 관이염지(觀而念之)로 성립하게 된다.

그 관이염지는 다시 삼신불의 확장으로 이어진다.³⁷⁾ 금타설을 인용하여 청화스님은 “허공의 심계를 관하며 범신 비로자나불을 염하고, 성해를 관하며 보신 노사나불을 염하고, 유무정을 관하며 화신인 석가모니불을 염하는 것이다. 다시 삼신불을 통관(通觀)하고 아미타불을 상념(常念)하는 삼신일불의 사유통찰”³⁸⁾에서 통관과 상념의 근거를 밝히고 있다. 여기서 「보리방편문」 ‘아미타불’ 절(節)의 내용을 추출하여 용어를 열거하면 아래와 같이 삼신일불로 도시할 수 있다.

3신	①범신	체대	자성청정심	여허공	성상의 본공경지	관이염지
	②보신	상대	원융무애지	여만해	정염여여의 일여성	
	③화신	용대	수연불변식	해중구	정염여여 여여상	
3신1불: [아(화③), 미(報②), 타(法①)]불(佛) 심수만경 미타행상						통관상념 ³⁹⁾

『금강심론』의 「보리방편문」의 구성은 ‘제1절 아미타불’로부터 모두 12절이다. 여기에는 여러 경전적 근거를 갖는데, 『문수설반야경』을 비롯하여 『관무량수경』, 『기신론』 등이다. 그 주요 내용은 관이염지의 가행(加

37) 금타설, 『금강심론』, p.60.

38) 『원통불법의 요체』, 광륜출판사, 2008, p.295.

39) ‘통관상념’ 용어는 금타설, 『금강심론』(p.59)의 「보리방편문」, “다시 피(彼) 무량무변(無量無邊)의 청공심계(淸空心界)와 정만성해(淨滿性海)와, “구상중생(漚相衆生)을 공(空)·성(性)·상(相) 일여(一如)의 일합상(一合相)으로 통관(通觀)하면서 삼신일불(三身一佛)인달하여 아(阿『化』)·미(彌『報』)·타(陀『法』) 불(佛)을 상념(常念)하고”의 부분에서 ‘통관’과 ‘상념’이 결합되었다.

行)으로 인한 인과원만(因圓果滿)의 공덕이 현현됨을 알리고 있다. 가관(假觀)의 일상삼매로 인해 견성의 실상삼매에 들어갈 수 있으며 또한 염수(念修)에 의한 일행삼매로 증도(證道)의 보현삼매를 얻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근책(勤策)에 의한 여시관(如是觀)은 결국 그 원만의 과보를 증득하게 된다는 것을 설하고 있다.

2. 총관실상의 호흡과 실상염불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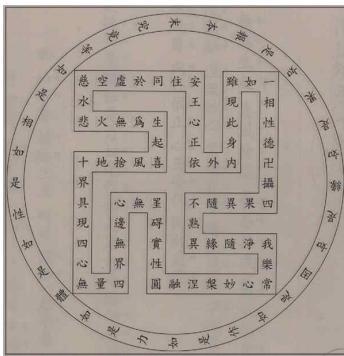
묘(妙)에 의한 숨 고르기의 방편은 지식(止息)으로 이어지고 다시 실상관으로 이어져 지혜를 밝히게 된다. 『육묘법문』에서는 “한 법을 밝게 관찰하면 모든 법과 마음을 밝게 비추어 보게 된다. 보리를 밝게 비추어 보면 번뇌와 생사도 보게 되고, 번뇌와 생사를 밝게 비추어 보면 보리와 열반도 보게 된다. 한 부처를 밝게 비추어 보면 중생과 모든 부처도 보게 되고…”⁴⁰⁾라고 하여 원교 수행인의 실상관을 설하고 있다. 실상론은 청화스님의 저술 여러 군데서 발견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청정의 호흡과 원묘의 관법이 이루어지는 실상염불선의 내용들을 『금강심론』과 청화스님의 법문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원교 실상론의 대표적인 근거는 ‘시(是)’에 의한 십여시(十如是)와 ‘즉(卽)’에 의한 상즉(相卽) 논리로 살펴볼 수 있다. 이는 법에 대한 참모습 관찰과 함께 일심삼관에 의한 실상의 체득 과정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심·불·중생의 무차별을 전제하는 것이며 이것이 심즉시불(心卽是佛)의 결과로 이어진다고 하였다. 구체적으로 『관무량수경』의 작불(作佛)과 시불(是佛)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구체화한 것인데 이는 청화스님이 중시한 실상관이다. 그 시(是)를 중심으로 ‘십여시’, ‘작·시’, 그리고 ‘삼관’의 과정이 『금강심론』에 제시된 실상론에 드러나며 그것이 청화스님의 가르침

40) 지의, 『육묘법문』(大正藏46, p.554상), “觀一法見一切法及一切心。觀菩提。見一切煩惱生死。觀煩惱生死。見一切菩提涅槃。觀一佛見一切衆生及諸佛。觀一衆生。見一切佛及一切衆生。”

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십여시는 『법화경』 「방편품」의⁴¹⁾ 제법실상을 제시하고 있다. 『법화경』의 중심 주제이기도하지만 또한 대승경전 전체에 해당하기도 한다. 시(是)에 의한 십여시는 삼전독(三轉讀)에 의해 법의 실상을 관찰하고자 함이며, 그 관찰방식은 육묘호흡에 대한 십문분석과 같은 형식이다. 더구나 그 실상관인 십여시는 『금강심론』에서도 인용하고 있다.



<십여시의 삼전독(三轉讀) 도표>

금타스님의 『금강심론』 제7장 「卍德頌과 十如是」에는 십여시를 통한 공·가·중 삼관의 적용을 볼 수 있다. 여기서 금타스님은 십여시의 삼전독(三轉讀)⁴²⁾을 활용하여 여시상(如是相)…방식으로 10가지를 읽으면 가제(假諦)가 되고, 시상여(是相如)…는 공제(空諦)로, 상여시(相如是)…일 때 중제(中諦)가 된다고 하여 ‘내사섭만덕송(內四攝卍德頌) 외인요십여시(外引用十如是)’의 법륜임을 알리고 있다.

다.⁴³⁾ 이리하여 제법실상 즉 존재들이 참모습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체득하는 것이다.

천태대사는 일념삼천(一念三千)을 통한 실상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문을 세웠다. 십계 상섭(相攝)을 통한 백계(百界), 그리고 그 백계에 십여시를 적용하면 천여시(千如是)이다. 이를 삼중세간에 배대하면 3,000의

41) 『법화경』(大正藏8 p.5하), “唯佛與佛 乃能究盡 諸法實相 如是相 如是性 如是體 如是力 如是作 如是因 如是緣 如是果 如是報 如是本末究竟”. 이는 법에 대한 속성으로서 상 등 10가지의 참모습을 보는 것이다.

42) 지의, 『법화현의』(大正藏33, p.693중), “天台師云. 依義讀文凡有三轉. 一云. 是相如是性如. 乃至是報如. 二云. 如是相 如是性. 乃至如是報. 三云. 相如是 性如是. 乃至報如是. 若皆稱如者. 如名不異卽空義也. 若作如是相如是性者. 點空相性名字施設遷迤不同. 卽假義也. 若作相如是者. 如於中道實相之是. 卽中義也”

43) 금타설, 『금강심론』, 「卍德頌十如是」章, p.126, “如字를 起點으로 하면, 假諦, 是字를 起點으로 하면 空諦, 相字를 起點으로 하면 中諦가 됨.”

숫자로 성립된다. 중생의 한 생각일지라도 이미 삼천실상이 구축해 있다는 점을 가리킨다. 이러한 삼천실상의 사유법은 『육묘법문』의 ⑤상섭문의 설정으로 이어지는데 6묘×6묘=36⁴⁴⁾의 설정과 같은 방식의 중층 구조이다.

다면적 분석 관점은 천태대사의 독특한 경전 분석 방식인 오중현의(五重玄義)⁴⁵⁾에서도 나타난다. ①석명(釋名), ②변체(辯體), ③명종(明宗), ④논용(論用), ⑤판교상(判教相)으로서 다양함을 알 수 있다. 『육묘법문』 역시 호흡 육묘를 10문의 관점으로 분석을 시도하였다. 상생(相生)·상섭(相攝) 혹은 수편(隨便)·대치되거나 통별(通別)·선전(旋轉)의 중층적 관계로 구성된다. 이는 행상을 위한 호흡 육묘가 교상의 근거를 잃지 않으며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도록 제시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한편 천태학에 있어 상즉(相卽)의 논리는 여러 전적에 설해져 있다. 상즉은 즉공(卽空)·즉가(卽假)·즉중(卽中)으로서 원교실상의 법문이다. 용수가 설정한 삼제(三諦) 사상을 천태대사가 원용삼제, 일심삼관의 법문으로 체계를 세웠다. 청화스님 역시 그의 법문에서 삼신(三身)에 삼제를 배대하였다.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을 공(空)에, 원만보신 노사나불을 가(假)에, 천백억화신 석가모니불을 중(中)에 해당한다고 하였다.⁴⁶⁾ 이것이 삼신삼관(三身三觀)·삼신일불(三身一佛)의 염불선으로 귀결된다.

천태대사는 『중론』의 삼제를 활용하여 이론화하고 이에 따른 실천 체계를 세웠다. 공제·가제·중도제일의제이다. 「보리방편문」 설명에서 청화스님은 천태의 삼제에 대한 설명을 시도하였다. “텅 비었다는 공(空)이며 실재한 것 같지만 물자체가 아니고 거짓이므로 가(假)이다. 중(中) 즉

44) 지의, 『육묘법문』(大正藏 46, p.551 하), “隨止觀還淨等。一一皆攝六門此則六六三十六妙門”

45) 오중현의는 오중현담(五重玄談), 오중현(五重玄) 혹은 오현(五玄)으로도 일컫는다. 석명(釋名)은 경의 제목을 해석하고, 변체(辯體)는 경의 중심 내용을 구분하며, 명종(明宗)은 경의 취지를 천명하고, 논용(論用)은 경을 공용을 논설하며, 교판(教判)은 교상의 판석이다.

46) 『마음의 고향』 5권, 상상예찬, p.57.

중도제일의제는 공도 가도 아니며 또한 그 둘과 통한다는 것이다.”⁴⁷⁾ 이 삼제를 각각으로 관하는 것이 격력차제(隔歷次第)이다. 그러나 천태의 가르침은 삼제가 상즉(相卽)하여 실상중도로서 원융삼제임을 가르치고 있다. 즉공(卽空)·즉가(卽假)·즉중(卽中)으로서 번뇌즉보리, 생사즉열반의 제법실상임을 알게 한다. 삼제의 논리는 실천론으로 활용하면서 삼관의 행법으로 이어진다. 중가입공관·중공출가관·중도제일의제관으로서 하나가 다른 둘과 상즉하는 무애로서 일심삼관(一心三觀)이다.

천태종의 일심삼관과 일념삼천은 금타·청화 스님의 관이염지와 통관 상념과 연계된다는 것을 설정할 수 있다. 이를 도시하면 다음과 같은 표식을 얻게 된다.

『마하지관』 삼제삼관		『보리방편문』 삼신삼관	
원융삼제↔ (일심삼관)	공제 중가입공관	觀법신 念비로자나	⇨삼신일불 (심즉시불)
	가제 중공입가관	觀보신 念원만보신	
	중도제일의제 (중도제일의제관)	觀화신 念석가여래	
중도실상		실상염불	

위와 같이 『금강심론』의 ‘아미타불’ 절(節)의 내용과 천태학의 삼관사상을 배치하였다. 여기서 천태의 가르침이 각각의 삼관과 통합의 원융이라면, 금타의 각각 삼신에 대한 관(觀)·염(念), 그리고 삼신일불의 통관으로 연계될 수 있다는 점이다. 천태대사와 금타스님가 제시한 관법은 염불선에도 적용될 수 있다. 즉 청명, 관상(觀像), 관상(觀想), 실상의 염

47) 『마음의 고향』 5권, p.53.

불법을 자유롭게 전환하거나 각각, 혹은 통합의 염불법으로 수립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방식은 앞서 언급한 「보리방편문」을 벽면에 붙이고 관이염지하는 염불선과도 일치한다.

천태의 일심삼관과 금타의 심즉시불의 가르침은 『육묘법문』의 상생, 상섭, 선전(旋轉)의 분석 방식과도 일치한다. 삼신일불이란 결국 청화스님의 언급처럼 “관(觀)입니다. 지금까지는 호흡을 위주로 했지만 호흡은 거의 고요한 단계가 되었으니까 관이라, 중도실상(中道實相)의 진여(眞如)를 관하는 것입니다. ‘나도 없고 너도 없고 천지 우주가 일미평등한 다 진여불성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관입니다.”⁴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육묘법문』의 심문분석의 내용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천지 우주가 일미평등한 다 진여불성’의 부분은 천태의 일념삼천설의 법문과 직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화스님의 실상염불선은 이렇듯 실상론에 의한 염불과 선정이 다면적·중층적 행상으로 설정된다는 점이다. 그것이 원통불교이며 그 근거로는 순선시대의 정통선과 『금강심론』의 가르침이다. 또한 원용사상으로 혹은 회통불교로 이어지며 동서양의 사상과 철학은 물론 종교와 과학의 관점 역시 상통한다.

IV. 맺음말

염불선을 주장하고 이에 대한 교관(敎觀)의 체계를 세운 청화스님의 가르침은 누구나 참여 가능한 대중불교의 지향이다. 천태의 『육묘법문』 역시 호흡을 통한 대중성을 지향하고 있다. 여기에는 수행상 필수인 호흡조절의 단계를 세우고 다양한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염불선이 갖는 관상행법 역시 호흡방편과 불가분의 관계이다. 이에 『육묘법문』의 위치와 더불어 금타스님과 청화스님의 법문에 내재된 호흡의 중시에 대한 의

48) 『원통불법의 요체』, 광륜출판사, 2008, p.140.

의를 다음의 다섯 가지로 요약하고자 한다.

첫째, 『육묘법문』의 육묘호흡의 배경은 『안반수의경』뿐만 아니라 오정심관의 내용이며, 아함경에도 자주 등장한다. 이를 천태대사가 재구성하였으며 또한 청화스님이 주창한 염불선과 직접적으로 연계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둘째, 염불선은 관상(觀相)·관경(觀境)이 기반이므로 호흡 방편을 통한 지식(止息) 과정은 필수이다. 따라서 정(定)이 구비될 때 혜(慧)를 밝힐 수 있다는 구체적이고도 세밀한 방법들을 소개하였다.

셋째, 『육묘법문』은 부정(不定)의 입장에서 행상들을 강설하였다. 이는 상생·상섭·편의 등 차례와 편의 그리고 전환하는 방법·방편들이다. 염불선의 입장에서 이들 방식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으며 염불행자는 자신에 맞는 수행법을 선택·적용할 수 있다.

넷째, 실상관을 제시하였다. 천태의 실상론을 금타·청화가 제시한 실상염불선에 적용할 수 있다. 천태종 원교의 수행으로서 십여시(十如是)와 일심삼관의 행법이 금타스님의 『금강심론』과 청화스님의 법문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알렸다.

다섯째, 다양한 근기에 대한 세밀하고도 구체적인 수행법 제시가 가능하다. 『육묘법문』의 탐구는 염불선 수행 매뉴얼 구비를 위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천태의 법문과 청화스님의 가르침은 소승의 법문에 그치지 않고 대승 보살의 행법으로 승화시킨 점이 특징이다. 천태학의 정밀하고 다양한 교상과 행법 체계의 구비는 청화스님이 추구한 지귀(旨歸)와 연계된다. 이에 따라 『육묘법문』에 제시된 다양한 방편들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 그 과정은 염불선 체계를 세우고 확산시키는데 중요한 전거가 된다. 그리고 누구나 현실적으로 참여 가능한 대중선법으로서 그 방법론을 구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 만다라선 역, 『문수설반야경』(大正藏8)
구마라집 역, 『법화경』(大正藏8)
안세고 역, 『안반수의경』(大正藏15)
지 의, 『마하지관』(大正藏46)
____, 『법화현의』(大正藏33)
____, 『육묘법문』(大正藏46)
____, 『수습지관좌선법요』(大正藏46)
____, 『차제선문』(大正藏46)
금타설, 『금강심론』, 서울: 광륜출판사, 2009.
『정통선의 향훈』, 서울: 광륜출판사, 2008.
『원통불법의 요체』, 서울:광륜출판사, 2008.
『실상염불선』, 서울: 광륜출판사, 2013.
『마음의 고향』 제2권, 『수행자법문』, 서울: 상상예찬, 2008.
『마음의 고향』 제5권, 『보리방편문』, 서울: 상상나무, 2008.
佐藤哲英, 『天台大師研究』, 百華苑, 1961.
조준호, 『초기불교에 있어 止·觀의 문제』, 『한국선학』 제1호, 2000.

Abstract

The connection between LuMiaoFaMen of Tientai and Chungghwa's YeumBulSeon

Choi, Dong-soon
(Buddhism Researcher, Dongguk Univ.)

This study is the analysis of breath described in “LuMiaoFaMen” which is the teachings of Tientai Zhiyi(538~597) and the development of argument points to determine the position of YeumBulSeon. <LuMiaoFaMen> is a book reconstructing <AnPanShouYi-Sutra> translated by AnShiGao. He classifies the breath into 6 types which were LuMiao. The ‘Miao (delicate, subtle)’ was emphasized as Pāramitā which led to the nirvana.

Modern YeumBulSeon has been introduced by the monk Chungghwa (1924~2003). It is also called “Silsang YeumBulSeon”. The practice emphasizes the observe to subject (觀相) and requires acceptance of methods for stop and elaxation (止息). At the same time, it seeks to develop wisdom. During the process, it is possible to adopt the position which is suitable for carrying out the YeumBulSeon.

The teachings of the LuMiaoFaMen include control of breath which is critical for practitioners and various analyses. As the YeumBulSeon of monk Chungghwa is based on the observe to subject (觀相) and the penetrate to environment (觀境), the process of stop and elaxation (止息) through the breath is essential. Thus, when samatha (定) is prepared as the condition of stop and elaxation (止息), vipassanā is made and then it can reveal the enlightenment, wisdom (慧). Monk Chungghwa introduced concrete and detailed methods.

The practice methods of <LuMiaoFaMen> was classified from the perspective of non-determine (不定). In this study, I present the order of mutual alive, mutual embrace and convenience and the methods to convert them. These methods can be accepted from the perspective of YeumBulSeon. You can adopt the one that is appropriate for you. The teachings of the monk Chunghwa present the importance of breath and its methods. The explanation of Tientai Zhiyi and the teachings of monk Chunghwa are not only Buddhism writings of two monks but are also developed as the practice of bodhisattva. The detailed and diverse contents and practice systems provided in Tientai Thought are compared with the goals (旨歸) the monk Chunghwa pursued.

Key words

LuMiaoFaMen, Gumta, Silsang YeumBulSeon, AnPanShouYi-Sutra, Chunghwa, Tientai Zhiyi